



허준의 물 이야기

이유명호/남강한의원장, 대한여한의사회 부회장

물은 시청률의 인기 드라마 <허준>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장면이 있었다.

유의태의원의 문하에 막 들어간 허준이 약 달일 물을 길어 오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는 동네에서 가장 깨끗한 우물물을 길어왔으나 스승은 한 모금 맛을 본 후 씩은 물이라며 힘들게 길어온 물을 모두 쏟아 버린다.

허준은 고민 끝에 깨닫고 첫 새벽에 20리를 걸어서 왕산 골짜기 샘물을 길어 오게 된다.

그 때 스승이 이르기를 “의원이 가려 써야 하는 물은 서른 세 가지다. 이로운 물과 해로운 물이 있고, 물의 성질을 알고 써야 달이는 약의 약효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후에 허준은 동의보감 탕약편 논수품(論水品)에 삼십 삼종 물의 기미(氣味)를 자세히 구분하여 놓았다.

정화수는 첫 새벽의 정기가 이슬로 수면에 맺힌 것으로 병자의 음기를 보할 때 쓴다. 한천수는 찬 샘물로 여름에는 차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어서 오래 마시면 위를 다스린다. 엽설수는 설달 눈녹은 물로써 성질이 매우 차서 과음으로 인한 황달과 간병에 쓴다. 춘우수는 정

월 처음에 오는 빗물로 양기를 북돋우는 기운이 있다.

또한 겨울 서리인 동상은 솔로 인한 열병을 다스리고 얼음은 번열을 치료하고 끓는 물과 찬물을 반씩 섞어서 볶은 소금을 조금 탄 생숙탕은 음양(陰陽)탕이라는 멋진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토사곽란을 멎게 한다. 이렇게 감란수, 백해수, 온천수, 냉천수 등이 있고 요즘 그 효능이 널리 알려진 황토물인 지장수도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대단히 흥미로운 물의 연구가 소개되었다.

일본 LHLM종합연구소장인 에모토 마사루씨가 다양한 물의 빙결 결정을 촬영하여 지역이나 음악, 문자 정보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 사진 자료집을 출판하였다.

일본의 ‘과동교육사’에서 펴낸 ‘물이 전하는 메세지’에 따르면 물은 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수백만 년 전부터 내린 눈의 결정이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다고 알려져 있는 것처럼 물의 결정도 그 모습이 매우 다양하다.

한편 음악이나 소리를 들려주거나 문자메세지 등을 보여준 후에 물의 결정을 찍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의 아리랑을 들려

주었을 때는 결정이 가운데가 패여 마치 심장이 쪼개지는 모습으로 가슴아픔을 보여 주는 것 같고, 전원교향곡이나 G선상의 아리아 같이 맑고 평화로운 음악을 들려 주었을 때에는 보석같이 아름다운 육각형의 결정이 찍혔다.

마치 인간의 감정 상태가 얼굴 표정에 나타나는 것처럼 물의 얼굴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 같았다. 에모토 마사루씨는 “이것은 현대 과학적 물 분석방법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본 물의 평가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의학에서는 사람마다 체질의 특성 즉 더운 체질, 찬 체질을 감별하고 물의 기미(氣味)를 가려서 약을 쓴다.

물이 중요한 생명정보의 원천이므로 우리 선인들이 수천년 동안 한약을 물로 달여주는 한의학적 방법을 발달시켜온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랑과 감사라는 강력한 긍정 에너지로 의식을 변화시킨다면 몸속의 물 또한 건강하게 점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자연속에서 물은 순환하여 모든 생명을 포용하고 길러내는 생명의 어머니이다.